

KEPCO

2026 April
Vol.634

축적

COVER STORY	4
계속된 러닝이 쌓아 올린 힘 누적, 축적 그리고 족적	
SPECIAL THEME	6
AI로 다시 쓰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	
TRANS : MISSION	10
실시간 발전 데이터 분석-예측 플랫폼 'IDPP'	
ISSUE 1	14
글로벌 ESG 평가에서 입증된 한전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ISSUE 2	16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청렴 KEPCO를 구현한다 '청렴혁신추진단'	
이야기 전력사	18
4월 10일 '전기의 날'을 아시나요?	
SIGHT	20
국내 최초 전압형 HVDC 완도변환소를 가다	
KEPCO NEWS	24



KEPCO

2026 APRIL VOL.634

통권	634호 2026년 4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6년 4월 1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권정주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15, 312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주)이팝
인쇄	한결엠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계속된 러닝이 쌓아 올린 힘

누적,

축적

그리고 족적

달리기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행위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문밖을 나서는 것, 오직 두 다리의 정직한 움직임만으로 완성되는 러닝은 놀랍게도 삶 자체를 바꿔놓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딛는 서툰 발걸음이 수만 킬로미터의 누적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단단한 축적의 시간을 지나면, 달리기는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족적이 된다.

멈추지 않는 달리기가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찬란한 역사로 바꾸어 놓는지, 그 위대한 궤적에 대하여.

글 유문진 러너, 『당신도 러너다』 저자

이지 않았다. 1km를 달리고도 주저앉던 초보 러너는, 멈추지 않는 누적의 힘을 통해 비로소 수많은 대회 출발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강인한 두 다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곧 내가 인내하고 이겨낸 고통의 총량이었으며, 그것은 어떤 탁월한 재능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 내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축적(蓄積),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여정

단순한 물리적 거리의 누적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차원이 다른 경험의 축적으로 전환된다. 무작정 달리고 부딪치며 거리를 늘려가던 시기를 지나면, 러너는 타인의 속도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의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된다. 나 역시 거리의 누적을 넘어서며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나를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초보 시절에는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조바심을 내고, 무리한 오버 페이스로 처참하게 무너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거리가 쌓이고 훈련이 거듭되면서 실패와 성공의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나는 비로소 나만의 속도를 찾는 법을 배웠다. 남들이 아득하다고 여겼던 기록의 벽을 넘어섰을 때도, 주로부터 수많은 러너를 이끄는 페이스(Pacer)로 참여하여 맨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결국 나만의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거친 숨소리를 뿜어내며 각자의 한계와 싸우는 수많은 러너와 호흡을 맞추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다. 달리기에서 진정한 고수가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능력이 아니었다.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며 나아가는 단단한 내면을 축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초보를 벗어나 진정한 러너로 거듭나는 가장 완벽한 경험의 축적이었다.

누적(累積), 정직한 땀방울이 거리가 되다

도대체 누가 풀코스를 땀까? 처음 러닝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5km조차 아득하고 벽찬 거리라고 생각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험악함을 견디며 30분, 아니 1시간을 길 위에서 버틴다는 것은 무모한 짓으로만 보였다. 매일같이 달린다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무모하다고 생각했고, 주변에도 단호하게 말하곤 했다. 무작정 많은 거리를 달리는 건 큰 의미가 없으며, 명확한 목표를 향한 효율적인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고.

나는 완전히 틀렸다. 역설적이게도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토록 무모해 보였던 매일의 땀방울이었다. 요령과 지름길이 결코 통하지 않는 달리기의 정직한 세계에서, 하루하루 땅을 박차고 나간 걸음들은 매달 수백 킬로미터, 어느덧 수만 킬로미터라는 거대한 누적의 거리로 번모했다. 아스팔트 위에 쏟아낸 정직한 땀방울은 단 한 번도 나를 속

족적(足跡), 길 위에 새긴 발자국이 삶을 바꾸다

숨 막히는 누적의 시간과 흔들림 없는 축적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길 위의 걸음들은 결국 내 삶에 뚜렷한 족적으로 남았다. 이 길고 긴 레이스를 씩씩이 이어오며 내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다. 달리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완벽하게 닮아 있다는 것이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오르막 뒤에는 반드시 땀을 식혀주는 내리막이 있고, 때로는 숨이 멎을 듯 고통스러워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결승선에 가닿게 된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대한 레이스를 달리는 러너들이다.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오직 나의 의지와 두 다리의 힘만으로 어딘가에 가장 정직하게 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달리기가 유일할지도 모른다. 아스팔트 위에 똑똑 떨어졌던 땀방울과 묵직하게 찍혔던 발자국들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의 가장 찬란한 역사로 기록된다.

에너지 혁명의 게임 체인저

AI로 다시 쓰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

글 강지원 AI혁신단 AI전략실 차장



<AI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중점 전략>

시대적 변곡점
왜 지금 'AI 대전환'인가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하고 파괴적인 기술적 변곡점에 서 있다. 전력산업도 예외는 없다. 오늘날 전력산업은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0년 3천여 개에 불과하던 발전기 숫자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15년 만에 50배 이상 증가해 15만 개에 이르렀다. 집집마다 태양광과 전기차가 보급되고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만들어 파는 프로슈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 계통의 변동성과 복잡성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여기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가 비용 급증과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겹치며, 기존의 운영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실마리를 제시한다. 엄청난 수의 발전원과 수요 자원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고, 건설·운영 비용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며, 최적의 전력망 루트를 찾아내는 일은 이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한전은 발전부터 송변전·배전·판매까지 전 영역에 걸친 방대한 전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AI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많은 변수를 종합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한다면, 전력망 운영의 효율은 높아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AI는 에너지의 두뇌이고, 에너지는 AI의 연료이다. 한전이 AI를 단순한 업무 도구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는 이유다. 한전이 발표한 『KEPCO AI 대전환 추진 로드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다.

글로벌 유틸리티의 거센 물결,
그리고 한전의 출발선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AI를 혁신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Enel은 전력 가치사슬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배전망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전 세계에 수출하며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했다. 스페인의 Iberdrola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며 전력 공급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영국의 Octopus Energy는 AI 플랫폼 하나로 18개국의 에너지 서비스 시장을 개척한 대표적 사례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단순한 전력 공급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하여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 생태계를 창조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했다는 것이다.

한전 역시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있다. AI 비전 설정을 시작으로 AI를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쟁자들은 AI를 무기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 한전은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전력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AI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AI의 원유를 캐다 - 흠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자산으로
데이터는 AI의 원유(原油)다. 원유가 없으면 엔진은 돌아가지 않는다. 한전은 그동안 발전부터 송변전·배전·판매에 이르는 시스템별로 단절된 전력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AI가 데이터 간의 의미와 맥락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온톨로지(Ontology)'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활용되지 못했던 문서·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도 AI가 바로 학습할 수 있는 'AI-READY' 형태로 자산화한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는 전력망 설계부터 계통 운영, 고객 서비스까지 AI가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토대가 되고, Virtual Grid 등 핵심 솔루션 구현의 출발점이 된다.

전략 2: 현장을 바꾸다 - 전력 가치사슬 전반의 AI 융합
AI가 전력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바꾼다. 한전은 전력공급 최적화, 판매·서비스 혁신, 신성장동력 창출, 안전·ESG 경영, 업무혁신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AI 솔루션을 현장 전반에 적용한다. 대표 과제는 생성형 AI 기반의 'Virtual Grid'다. 현실 전력망과 동일한 가상 환경을 사이버 공간에 구현해, 현실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계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디어와 예측을 검증하고, 전력망 건설과 운영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응대 품질을 높이고, 직원들은 한전 업무에 특화된 AI비서를 통해 보고서 작성·번역·회의록 생성 등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게 된다.

전략 3: AI 고속도로를 깔다 - KEPCO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AI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프라다. 한전은 나주·대전 두 곳의 전력 ICT 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면 전환하고, 고성능 GPU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 혁신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로 운영해 에너지 AI 생태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인프라는 한전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AI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다. ① 데이터 연계, ② AI개발·운영환경, ③ 핵심 AI역량 세 개의 분야에 대해

단계별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AI 기초기술(MLOps, LLM 등)을 확보하고, 시대에 맞는 기술 수준을 검증하여 자율형 AI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다.

전략 4 : 체계를 세우다 - AI 대전환을 실행으로 만드는 추진력

AI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려면 강력한 추진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전은 AI혁신단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이사회 산하에 AI 소위원회와 신설하고, 외부 자문위원회와 민간·공공 협의체를 구성해 대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 AI가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리·안전·신뢰성 기반의 AI 위험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대전환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전력데이터의 가치 공유형 개방을 통해 민간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 5 : 체질을 바꾸다 - AI를 가장 잘쓰는 회사로

AI 대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AI First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한전은 AI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과 내부 역량 축적을 병행해 조직 전반의 AI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직원들이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AI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AI 경영혁신 선포식을 기점으로 사내 AI 활용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연말에는 AI Festival을 열어 전 직원이 AI 성과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전이 꿈꾸는 조직의 모습이다.

단계별 진화 로드맵
2030년, 한전이 바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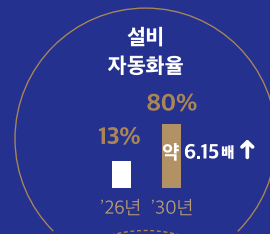
KEPCO의 여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 **1단계, 기반 조성기(2026~)**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면 전환하는 등 AI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2단계, 본격 확산기(2028~)** 본격적으로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전담하고 사람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집중한다. AI가 재생에너지와 ESS 등 분산 자원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단계다.
- **3단계, 대전환 완성기(2030~)** 전력 흐름과 데이터 흐름이 통합되어 에너지가 자율적으로 거래·최적화되는 플랫폼 위에서, 한전은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을 넘어 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재탄생한다.

한전의 AI 대전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한전의 AI 대전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 하나에서 출발해 클라우드·물류·스트리밍까지 확장한 것처럼, 한전의 에너지

플랫폼은 전력망 운영 최적화를 시작으로 전력 거래 중개, 에너지 효율화, 분산 자원 통합 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 플랫폼 위에서 국내 에너지 혁신기업들이 한전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한전이 보유한 기술을 패키징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결국 한전의 AI 대전환은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선언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AI 플랫폼 기업 ”



Global Top-tier AI Utility in 2030

〈AI 대전환을 위한 KEPCO의 비전〉

THE BEST ENERGY AI PLATFORM PROVIDER



↑ 휴머노이드와 함께 AI 경영혁신을 다짐하는 김동철 사장과 한전 경영진.
← 휴머노이드와 하이퍼이브.

AI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

국가 미래를 이끌기 위한 AI 경영혁신 선포

최근 한전은 급변하는 에너지산업 환경과 경영혁신 요구,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에 발맞춰 기존의 ICT기획처를 AI혁신단으로 전격 개편하고 전사 역량을 결집해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기존의 전력 공급자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3월 23일, 본사 2층 비전홀. CEO 입장을 알리는 순간,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김동철 사장 옆에 나란히 걸어들어오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 장내에 웅성임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한전 사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입장하는 장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전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어서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과 휴머노이드가 함께 단상에 올라 버튼을 터치하자 'AI 대전환의 중심, 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허공에 3D 홀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장내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3가지 축과 한전의 AI 비전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이에 더해, AI혁신단 직원들이 직접 AI로 제작한 영상이 이어지며 공감대를 더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AI가 함께한 그 영상은, 이날 선포식의 메시지를 가장 생생하게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국정 핵심 아젠다인 에너지와 AI, 그 중심에 한국전력이 있다는 자각, 우리가 국가 미래를 견인한다는 비장한 각오,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AI 대전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The Best Energy AI Platform Provider'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국전력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영상의 멘트 그대로, 한전의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실시간 발전 데이터 분석·예측 플랫폼

IDPP

한전은 올해 3월, 베트남 EVNGENCO3와 IDPP 플랫폼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첫 해외사업화에 성공했다. 이 기념비적인 순간, IDPP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마성훈 전력연구원 디지털솔루션연구소 대리

기술 개발 배경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전소의 정교한 운영과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해 발전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난 100여 년간 고정부하 방식으로 운전해오던 대형 화력발전소의 운전 방식에도 유연운전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연운전¹은 발전소 설계 당시 전제했던 운영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발전기 설비의 수명이 단축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고장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설치된 2만~5만 개의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활용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기술 설명 및 해외 시스템과 비교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운영시스템(IDPP, 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은 발전소 운전·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설비 상태를 예측하고, 고장을 최소화하며,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IDPP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수년간의 연구·검증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App)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 IDPP의 기술적 특성

- 실시간성** 발전소 센서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초고속 처리한다. 해외 상용 솔루션에 비해 약 250배 이상 빠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AI 활용성** 오픈소스 기반으로 AI 모델과 지능형 앱 개발을 지원하며 발전소 운영데이터를 활용한 설비 이상 탐지, 성능 분석 등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데이터 구조화** 발전소마다 다른 센서 데이터 규칙을 '태그 구조화' 프로세스를 통해 표준화하고, 서로 다른 발전소에서도 앱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 무작업 추출지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즉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¹ 유연운전(Flexible Operation): 고정부하로 운전해오던 전통적인 대형 화력·원자력 발전소를 신재생 발전량이 많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에 부하를 줄이고, 신재생 발전량이 감소하는 밤 시간대에 부하를 늘리는 가변 운전 방식(40~100% 부하 가변)



발전량예측솔루션

기존 해외 상용시스템이 데이터 저장·보관 중심에 머무는 반면, IDPP는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과 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현장 맞춤형 활용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다.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다. 해외 시스템은 호기당 약 3.7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과 추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IDPP는 약 0.4억 원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술적 성과도 세계적 수준이다. IDPP는 세계 최초로 발전소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해 관련 특허 5건을 확보했으며, 초당 수십만 건 이상의 센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상용 솔루션 대비 약 250배 이상 빠른 성능이다.

IDPP 활용의 기대효과

IDPP는 발전소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설비 상태를 자동 진단하며, 이상 상황과 수요 변화를 미리 예측해 전력 운영을 최적화한다. 덕분에 전력 계통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갑작스러운 설비 이상이나 기후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IDPP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품질인증(DQC-V)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증시험을 통해 데이터 누락을 0%를 검증받았다. 또한 발전소마다 다른 벤더·태그 규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표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태그 구조화 프로세스를 적용, 비표준 센서데이터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변환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오픈소스와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경제성과 고가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곧바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 발전 5개사의 총 7.3GW 규모 설비에 IDPP 플랫폼을 적용한 결과, 전체 발전 효율이 약 0.29%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전은 발전설비 고장예방을 통해 연간 약 640억 원의 대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발전사 또한 설비 고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약 89.9억 원의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발전소별로 상이한 설비의 주기별 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아이디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 미래 발전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국내 기술 적용 현황

IDPP 플랫폼은 발전사별로 1.5초에서 5초 간격으로 태그(Tag)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 주기는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 조정된다. 현재 발전 5사의 총 28개 호기에서 데이터를 운영 중이며, 총 약 47만 개의 태그 데이터를 다룬다.

● **IDPP 적용 5개 발전사 28개 호기 데이터 운영 현황**

발전사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총계
대상 발전소 (호기 수)	2호기	15호기	2호기	7호기	2호기	28호기
데이터 규모 (Tag 수)	4만 Tag	29만 Tag	2만 Tag	8만 Tag	4만 Tag	47만 Tag

한전 데이터센터에서는 발전 5사의 연구 대상 발전소 15호기를 선정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다.

● **한전 연계 IDPP 5개 발전사 15개 호기 실시간 데이터 수집 현황**

발전사	대상 발전소 (수집 주기)	일 데이터 적재량
남동	2호기 (1.5초)	34억 개 (93.6GB)
남부	4호기 (5초)	13억 개 (30.4GB)
동서	2호기 (1.5초)	8억 개 (9.8GB)
서부	5호기 (3초)	28억 개 (61.3GB)
중부	2호기 (3초)	12억 개 (13.2GB)
총계	15호기	95억 개 (약 208GB)

AI 기반 IDPP 애플리케이션은 발전소 효율 개선과 설비 진단을 위해 총 23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성능감시, 조기경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AI 분석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전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표준복합발전소인 김포열병합발전소에는 총 7종의 앱이 적용되어 있다. 이는 국산 가스터빈 기반 가스복합발전소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며, 주요 기기의 상태 감시, 진단, 예측, 평가를 기반으로 최적 운전 기술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부분부하 성능예측 솔루션, 발전량 예측 솔루션, 압축기 성능 최적화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발전사별 IDPP 플랫폼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인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IDPP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남부발전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자체화하기 위해 기존 4호기에 국한되어 있던 IDPP 적용 범위를 전체 15호기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기술 역량을 갖춘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12종의 발전설비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현재 4기의 학습조직이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IDPP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프라 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부분부하 성능예측솔루션

압축기 성능최적화 솔루션

서부발전은 발전회사 최초로 발전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사내·외 챌린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 솔루션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부 AX 이노베이션센터'를 중심으로 발전데이터 활용 솔루션의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발전 운영에 특화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AI 솔루션의 가치를 높여 매출 증대까지 이어가고 있다. 남동발전은 '발전소 AX(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발전소 운영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 사업화 성과 및 추진계획

한전은 지난 3월 베트남 전력공사(EVN) 산하 EVNGENCO3와 IDPP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Phu My 1과 Vinh Tan 2 발전소 등 총 3개 호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231만 달러이며, 사업기간은 16개월이다. 해외에서는 시장 잠재력이 큰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라이선스 구독 방식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초기 구축 비용(기술 용역)에 더해 연간 정기 이용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IDPP 플랫폼과 필요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공하게 된다.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5개국의 GDP와 발전용량을 고려했을 때, 동남아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

●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의 GDP와 발전용량**

구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 (\$)	33,907	13,382	8,181	5,106	4,475
발전용량 (GW)	56.8	36	47.6	56.5	65.3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에서 다양한 솔루션 적용과 실적 확보를 통해 UAE, 사우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중동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제품 유지보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입증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화력발전 시장에 진출해 5년간 약 4.6조 원 규모의 시장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전 5사 전반에 IDPP 플랫폼을 확대 적용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전력 구입비를 줄임으로써, 향후 5년간 약 3,200억 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외산 데이터 플랫폼을 IDPP로 대체하면 유지보수와 라이선스 비용이 감소해 5년간 약 1,924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설비 성능 감시, 조기 경보 등 효과가 입증된 만큼 향후에는 민간 발전사나 산업계에도 IDPP 플랫폼을 공급·확산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무 성과와 시장 점유율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지표였다면, 이제는 환경(E)·사회(S)·거버넌스(G) 전반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이 S&P Global Sustainability Yearbook 등재와 LACP 비전어워드 대상 수상 등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의 성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자.

▶ 함대호 기획처 정책조정실 차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투자와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국제 평가기관들은 기업의 ESG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S&P Global 등 글로벌 평가기관들은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별 ESG 우수 기업을 선정하며,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전은 세계적 권위의 ESG 평가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어워드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ESG 경영, 글로벌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ESG 평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강화하고 ESG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단편적 사회공헌 활동이나 환경보전 노력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ESG를 접목하고, 이를 성과와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 과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에너지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력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에너지 전환 정책 대응,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다양한 요소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전력 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LACP 비전 어워드 상장



S&P Global 인증서



글로벌 ESG 평가의 대표 지표, S&P Global Sustainability Yearbook

S&P Global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ESG 수준을 산정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평가 중 하나로서 기업의 환경(E)·사회(S)·거버넌스(G)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측정한다. 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발표되는 Sustainability Yearbook은 산업별 상위 기업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연감으로,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 세계 59개 산업군 약 9,200여 개 기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848개 기업만이 Yearbook에 등재되었다.

글로벌 전력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한전

한전은 이번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발표되는 Sustainability Yearbook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Yearbook Member로 선정되며 ESG 경영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Enel, Iberdrola, Acciona 등 세계적인 전력기업들과 함께 Yearbook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76점을 기록하여 그간 추진해 온 ESG 관리체계 고도화와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한전의 ESG 경영전략과 관리체계가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어워드에서도 이어진 성과

한전의 성과는 ESG 평가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전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어워드(Vision Awards)에서도 유틸리티 분야 최고 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하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경쟁력까지 인정받았다. 비전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차보고서』 등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평가하는 글로벌 어워드며, 포춘 500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적 권위의 평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평가에는 약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한전은 총점 99점을 기록하며 Top 12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메시지 전달력, 콘텐츠 구성, 서술 방식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글로벌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입증했다.

지속가능경영 기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한전은 2005년 공공기관 중 최초로 UNGC(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이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ESG 경영 성과와 추진 방향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 이번 S&P Global Sustainability Yearbook 등재와 LACP 비전어워드 대상 수상은 한전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정보공개 투명성이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한전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 하며, 글로벌 최고 전력 유틸리티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혁신추진단 Kick-off 회의

사회가 성장의 시대를 넘어 성숙의 시대로 진입한 만큼 청렴에 대한 시각도 깊고 성숙해졌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청렴은, 이제 고객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는 ‘적극적이고 따뜻한 온기’이다.

글 여명 준법경영실 청렴총괄담당



청렴, 가장 정직한 이름으로 고객의 마음을 두드리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청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차가운 목록’이었다. 누군가의 눈을 피해 선을 넘지 않는 것, 즉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청렴이었다. 하지만 시대의 공기는 변했다. 규정의 문구 뒤에 숨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에 적극 응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구하는 진짜 청렴의 얼굴이다.

당당한 자부심으로 여는 신뢰의 미래, 청렴으로 한전의 가치를 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 한전의 역할 또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의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방어기제를 넘어,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을 쌓아 올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혁신하는 능동적인 가치 창출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전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이기에, 우리의 투명함은 곧 국가 에너지 생태계의 건강함으로 직결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마주해야 한다. 이에 올해 한전의 경영 나침반은 명확하게 ‘청렴과 고객의 신뢰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김동철 사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는 최선의 방책”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당당해져야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화려한 논리를 찾기 전에, 우리 자신의 정직과 당당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외부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내부의 당당함이 국민적 지지로 이어질 때, 한전은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향한 거대한 물줄기, 청렴혁신추진단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길은 오직 쉽 없는 혁신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은 조직을 새롭게 깨웠다. 이에 한전은 연초 1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청렴한전 구현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 서막을 알린 것은 올초 1월 26일 시행된 ‘경영진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였다. 김동철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및 전 사업소장 74명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윤리경영 결의 서명을 통해 청렴 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와 다짐을 표명하고 202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혁신의 동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자, 김동철 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청렴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전격 가동에 나섰다. 청렴혁신추진단은 경영진을 비롯하여 법률, 경제,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책 의결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청렴윤리위원회와 본사 처(실)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는 본사 청렴윤리 TF, 현장이행으로서 혁신의 종착지인 사업소 청렴윤리 TF로 구성된다. 청렴혁신추진단은 3월 16일 킷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특단 대책의 실효성을 끝까지 담보하는 혁신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현재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며 변화의 물길을 터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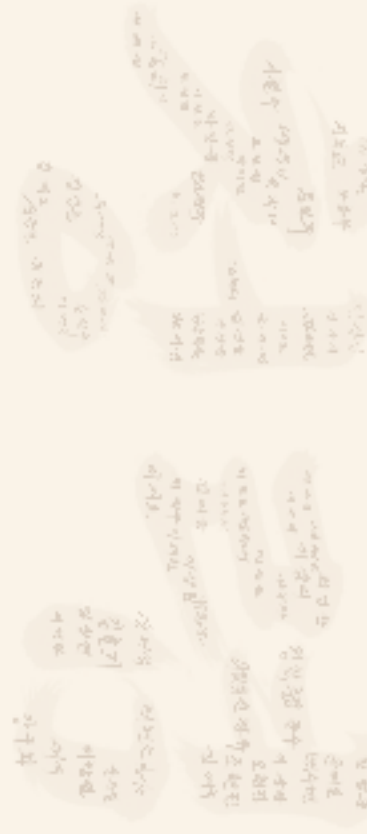
당당·명확·투명한 한전의 내일을 위한 4대 혁신 동력

청렴혁신추진단은 ‘당당·명확·투명한 업무처리 기반 청렴문화의 획기적 개선 및 부패발생 경험 제로화 달성’을 핵심 과제로 삼으며 총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제1분과 청렴 관리체계	청렴을 개인의 도덕적 영역에서 조직의 시스템으로 확장시킨다. 사업소장 인사 평가와 사업소 평가에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청렴하게 일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 동기부여를 강화한다.
제2분과 관행적 업무 타파	공급자 중심의 낡은 관성을 견어내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응대 표준모델’과 대내외 청렴소통을 위한 전 사업소장 무기명 알림톡 시스템을 구축한다. 업무의 투명성을 고객이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신뢰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
제3분과 청렴문화 내재화	청렴이 활자가 아닌 일상의 호흡이 되도록 돕는다. 제2분과(관행적 업무 타파)에서 도출된 ‘고객응대 표준모델’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소통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청렴이 조직 문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분과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제도적 빈틈을 메우는 ‘핀셋 혁신’을 단행하여, 부정의 소지가 발붙일 수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짜 나간다.

새로운 청렴 모멘텀, 더 나은 한전의 내일을 위하여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일련의 청렴 혁신을 향한 노력은 단순한 수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전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새로운 ‘청렴 모멘텀’을 만들어내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의 성벽을 쌓는 과정이다. “청렴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맞물릴 때 비로소 한전은 진정한 ‘청렴 1등급’ 공기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건네는 따스한 배려와 매 순간 가장 투명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국민의 삶에 신뢰라는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다. 더욱 당당하고 믿음직한 한전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진심을 다해 변화의 길을 걷는다.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4월 10일 ‘전기의 날’을 아시나요?

4월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 있다. 바로 4월 10일 ‘전기의 날’이다. 이날은 1900년 4월 10일 서울 종로거리에서 문명의 빛, 전기가 처음으로 한성전기회사에 의해 점등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정리 장은경 출처 한국전력 서울백서 『KEPCO IN SEOUL, 더 큰 세상 속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점등을 기념하는 날

구한말 기록을 담은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는 120년 전인 1900년 4월 10일, 민간 최초로 종로 네거리에 가로등 3개가 점등돼 전차 정거장과 매표소를 밝혔다고 기록한다.

이날 낮에만 운행하던 전차를 밤 10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하여 종로에 있는 정류장과 매표소의 조명을 겸하여 가로등 3개에 점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간 점등의 시초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한 전기산업계가 뜻을 모아 1966년부터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전기의 날 제정엔 몇 가지 사연이 있다. 해방 이후 줄곧 전력난에 시달려오던 우리나라는 1964년 마침내 최초로 무제한 송전을 실시했고, 이를 기념키 위해 전기의 날 제정 논의가 전개됐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 나라 시등일을 기념일로 선정하는 게 하나의 통례여서 우리나라의 시등일을 찾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 그러나 그 당시 경복궁에서 최초 전깃불이 켜진 날을 찾기에 자료가 부족했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복궁 시등일을 밝히지 못하고 한성전기회사의 시등일인 1900년 4월 10일을 시등일로 하여 1966년 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력계 자체행사로 제정된 이 기념일은 1970년 12월 5일에 상공부령으로 공식적으로 전기의 날로 제정되었고, 1973년 정부의 각종 기념일 통합법 방침에 따라 ‘상공인의 날’ 행사에 통합되었다가 1983년에 다시 부활해, 대한전기협회 주관하에 매년 기념행사를 시행해왔다. 그리고 ‘전기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됐다.

대한민국 전기역사의 출발점, 중국이나 일본보다 2년 앞서

우리나라 전기역사의 첫 시작점은 이보다 13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경복궁 후원인 건청궁 앞 향원지 북서쪽 회화나무 아래,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등을 밝힌 것을 기념하는 ‘전기 발상지 표지석’이 서 있다.

1887년 3월 어느 저녁, 고종을 중심으로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전기가 굉음을 토해내더니 이내 기둥에 매달린 전구들에 일시에 불이 환하게 밝혀졌다. 이는 에디슨의 발명 이후 불과 8년도 안 된 시점이며,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약 2년 앞서 전기를 도입한 셈이다.

한말의 역사를 담은 『매천야록』에는 고종이 밤만 되면 전등을 켜놓고 배우들을 불러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고종황제는 세계 최초로 측우기와 금속활자를 발명할 만큼 과학적이었던 선조들의 정신을 서양문물 도입과 접목해 계승시킴으로써 나라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 유길준으로부터 미국에서 보고 온 전깃불에 대해 전해 듣고, 조미통상수호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1883년 미국에 파견했던 친선사절단 보빙

사에게서 전등이라는 신문물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은 고종황제는 1887년에 전기를 들여오기에 이른다.

고종이 도입한 발전 설비는 16축광의 전구 750개를 켤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이는 에디슨이 자사 제품의 판촉을 위해 야심 차게 시공했기 때문에 동양에서도 손꼽는 일류시설이었다. 1890년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었다가 훗날 주한 미국공사관 총영사 등을 역임한 알렌은 조선에서의 전기문제



↑ 국내 최초 민간점등일이자 한성전기회사의 시등일인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 전기 발상지 표지석



에 관한 보고서에서 건청궁의 발전시설을 극찬했으며, 에디슨 램프사의 총지배인인 엠티 역시 에디슨에게 보낸 서신에서 동양에서 유일한 일류시설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시설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약 2년 앞선 것으로 에디슨이 탄소전구를 발명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 불과 7년 5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서사가 시작된 출발점은 세계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1887년 3월 경복궁 건청궁 전기시등도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점등은 1887년 3월 건청궁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보다 앞선 1885년에 이미 점등이 이뤄졌다는 설도 있다. 1885년 말 성명 미상의 서양인 기술자가 증기기관에 의한 발전기 2대를 설치하고, 100축광에 달하는 서치라이트 2대를 건청궁과 그 앞뜰에 가설했다는 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인 이왕직이나 조선전기협회 경성전기 등에서 조사를 하긴 했지만 정확한 판단은 유보키로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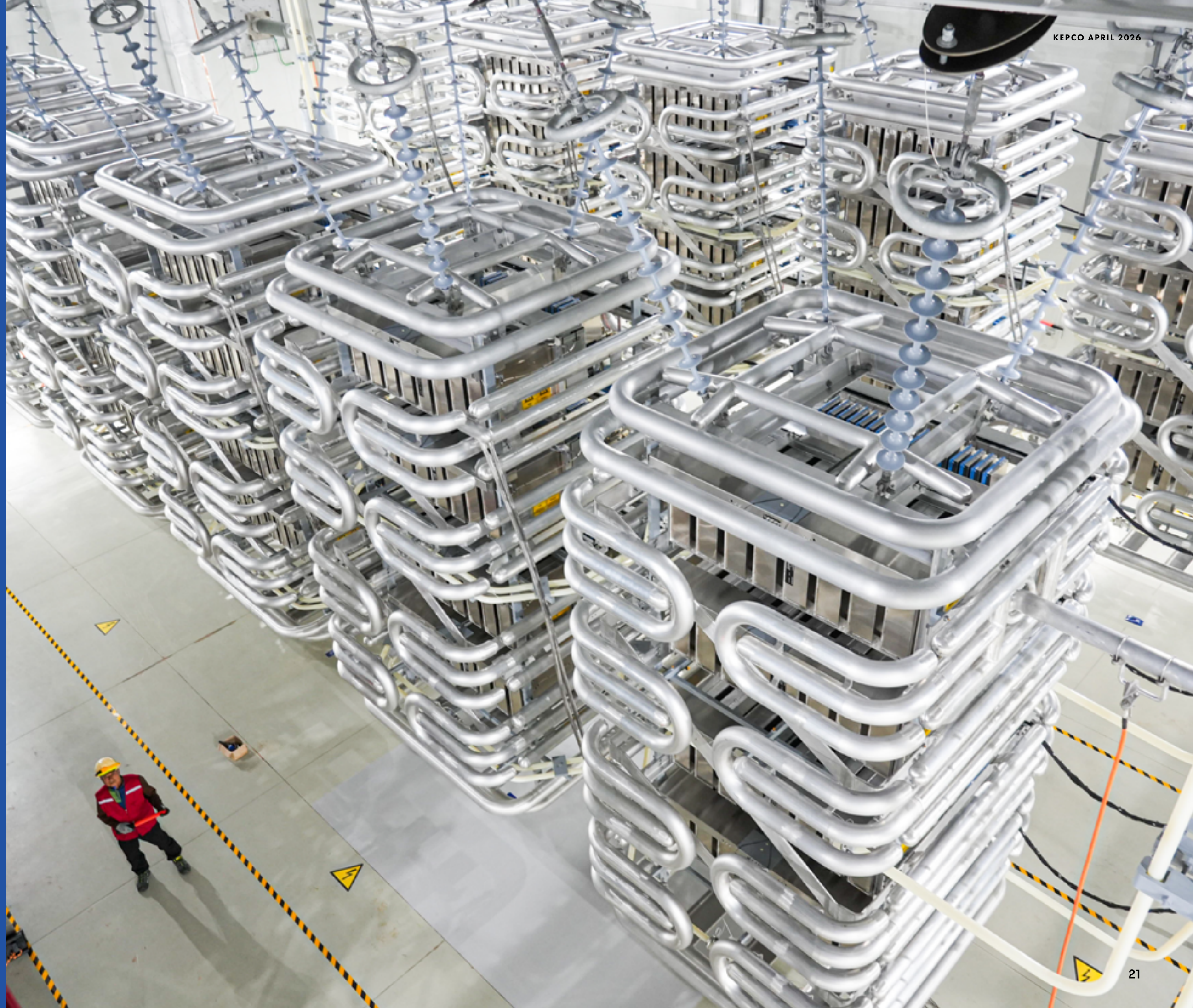
국내 최초 전압형

HVDC

완도변환소를 가다

그곳은 완도의 길 너머에 있었다.
바다를 바라다보며 달리던 길조차 끝나버린 곳,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한 그 길 너머에 완도
변환소가 있었다. 완도변환소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들의 현장을 만났다.

글 장은경 사진 황지현



완도변환소의 핵심소자 IGBT를 품은 밸브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파이프의 무리가 홀 안을 압도한다. 용트림을 하듯 꼬불꼬불하게 파리를 튼 파이프는 무려 1,728개의 반도체소자 IGBT를 감싸고 있다. 은빛 파이프의 정체는 반도체소자인 IGBT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파이프로, IGBT는 전압형 HVDC에서 전압을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완도변환소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밸브홀 설비로 1년에 한 번 오버홀 작업기간 중이나 실물 영접을 할 수 있는 귀하신 몸이다. 밸브 사이로 오버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분주히 오간다.

제3연계선, 제주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문제를 잡다

완도변환소는 내륙의 전기를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해 해저케이블을 통해 제주도까지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4년 11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완도변환소는 총 설비용량 200MW, 직류전압 ±150kV 규모로 이곳에서 출발한 전기는 바다 밑으로 난 길을 따라 98km를 달려 동제주변환소에 가 닿는다.

완도변환소가 연계된 완도변환소~동제주변환소 간 제3연계선은 신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져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 전력계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압형 HVDC로 건설됐다. 제주도는 섬지역 특성상 육지와 분리된 소규모 전력계통이다. 도서 내 전력수요를 자체 발전설비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해남변환소~제주변환소 간 제1연계선, 진도변환소~서제주변환소 간 제2연계선을 건설해 제주지역의 부족한 전력을 육지에서 공급받았다. 제1, 2연계선은 모두 전류형 HVDC 선로로 기존 해남변환소~제주변환소와 진도변환소~서제주변환소에 적용된 전통적 방식이다.

제3연계선은 앞선 두 연계선과 달리 차세대 방식인 전압형 HVDC가 적용됐다. 전압형 HVDC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전력 방향 전환 기능이다. 즉 휴전 없이 육지에서 제주로만이 아니라 제주에서 육지로 전력을 역전송할 수 있다. 이처럼 양방향 전력흐름 제어가 가능한 전압형 HVDC는 재생에너지 연계에 적합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적용되는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3연계선의 구축으로 제주지역의 전력공급 능력은 기존 360MW에서 600MW로 증가했으며 예비율도 14.3%에서 30.8%로 개선됐다.



↑ IGBT 밸브 정수 측정
← AC홀 육안 점검

경우 표준 154kV 변전소 기준에 맞게 설계됐고, 그밖에 전압형 HVDC를 위한 AC 설비가 포함된 AC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DC동의 경우에는 HVDC의 주요 설비인 변환용 변압기, 밸브 등 다양한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내일을 위한 에너지의 길을 닦는 완도변환소 사람들

완도변환소는 변환소에서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설비를 순시 점검하고 운전하는 9명의 변환소 근무자와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하는 2명의 변환 2팀 직원이 운영하고 있다.

전압형 HVDC 설비가 국내 최초의 상업 운전 중이다 보니 이들은 점검이나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제주본부와 협업하여 운영 절차를 제작 완료하였고, 현재는 영상 기반 정비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또한 해외 제작사와 직접 소통하며 기술을 확보해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 HVDC 설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전압형 HVDC 운영 기술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점검 때마다 제작사 엔지니어 파견을 요청하는 등 운영, 정비 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보람도 크다고 이들은 말한다.

“제작사 컨퍼런스, 해외 교육 등 다른 부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만든 절차서가 표준이 되고 설비에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뿌듯한 소회를 밝히는 변환2팀 김빛나 차장.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완도변환소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오늘의 발자국을 땀과 함께 열정으로 새기고 있다.



← 밸브홀 육안 점검
✓ 감시·제어실 기기조작



이렇듯 제주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발전량에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져 제주 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압형 HVDC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전력망 안정화 효과가 탁월하다. 또 전류형에 비해 필터 등 부속설비가 적어 부지면적을 약 50~6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전압형 HVDC 방식이 적용된 완도변환소에서 출발하는 제3연계선은 이렇게 전력수송로를 넘어 제주의 남은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고 흔들리는 전압을 잡아주는 에너지 댐이자 안정기 역할을 수행하여 출력제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완도변환소의 다양한 설비들

완도변환소는 HVDC 변환소이기에 일반 변전소와 비교하면 설비 구조와 운영방식이 매우 특수하다. 일반적인 변전소는 송전선로와 차단기, 변압기, 배전선로로 구성되는데 변환소는 여기에 교류·직류 변환장치가 추가된다. 변환용 밸브, 밸브 냉각시스템, DC 평활 리액터, 변환용변압기(C.T)이다. 그리고 전력 제어를 위한 복잡한 제어시스템이 추가됐다.

밸브홀 외에도 변환소는 AC동, DC동 2가지 건물로 구성됐다. AC동의

KEPCO NEWS

2026. 04.



‘청렴·고객만족 실행력’ 확산 위해 ‘CEO 현장 설명회’ 개최

김동철 사장은 3월 한 달간 사업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CEO 현장 설명회’를 지속했다.

3월 3일 경북본부와 3월 4일 대구본부를 시작으로 3월 13일 중부건설본부, 3월 17일 남서울본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설명회에서 김동철 사장은 최근 9년 만의 경영평가 A등급 달성과 상장 이래 최고가 경신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한 논리와 정책을 한전이 스스로 개발·제언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며 전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청렴과 고객만족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하며, ‘실천하는 청렴’과 ‘고객만족’이 한전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사장의 3월 중 소통행보는 청렴과 고객만족을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실천으로 옮기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AI 기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 해외 첫 수출 쾌거

한전이 AI 기반 발전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력 분야 e플랫폼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한전은 3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 공사(EVN) 산하의 EVNGENCO3 사(社)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 이하 IDPP)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푸미(Phu My 1) 및 빈탄(Vinh Tan 2) 발전소 총 3개 호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1만 달러, 사업기간은 16개월이다.

한전은 이번 3개 호기 구축을 시작으로, EVNGENCO3 사(社)와 협력 관계를 확대해 총 14개 호기(6.3GW)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나아가 베트남 전역 68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4,760만 달러, 동남아 시장 전체 확대하면 1.4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적 매출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전의 IDPP 플랫폼 도입 시 베트남 축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개 호기에 적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 대체전력 구입비 절감, O&M 비용절감 등 연간 약 440만 달러 규모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 전역 68호기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6,6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동시에 IDPP 플랫폼의 국내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가 국내 발전소에 운영 중인 노후 외산 솔루션을 이미 전환된 28호기를 포함해 전체 171호기로 확대 전환하면 약 1,43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맞춤형 IDPP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타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기능의 추가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 오픈

한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와 함께 흠어져 있던 에너지 서비스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공식 오픈했다.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절감 혜택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축된 플랫폼이다. 에너지 복지혜택,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안내 등 주요 서비스는 3월 16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esp.kepco.co.kr) 또는 ‘한전ON’을 통해 접속하거나 검색창에서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검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은 일반 가정, 소상공인, 산업체 등 요금 절감 팁이 필요하거나 다자녀·출산 가구 및 에너지 취약계층 등 요금 지원 혜택이 필요한 모든 고객을 위해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에 흠어져 있던 전기 사용과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39종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정보 확인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내 혜택 찾기’ 기능에서 가구원

수, 자녀 수 등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놓치고 있던 에너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또한 주택, 상가, 공장 등 용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지원 방법(용도별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제도)을 안내하고, 복잡한 보조금 절차와 생소한 용어로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선보인다. 공장 등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발적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플러스 DR’ 제도와 예상 수익 정보 역시 제공한다.



‘제1회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포럼’ 개최

한전이 3월 12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김동철 사장과 경영진, 산·학·연 전문가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혁신과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올해 상반기 설립 예정인 한전 기술지주회사의 합리적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한전이 보유한 특허와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세션에서는 한전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계획 및 운영 방안’을 시작으로 기업벤처 투자사의 투자 및 지역거점 전략(포스코 기술투자 김근환 사장), 유망 기업 발굴 및 차별화된 투자 프로세스(위벤처스 하태훈 대표), 초기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도전과제(그리네플 이형술 대표) 등 실질적인 제언과 핵심 인사이트가 공유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기업형 기술지주회사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과 스타트업 발굴·육성 전략에 대해 10명의 산·학·연 전문가 패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한전 기술지주회사의 지분 투자와 매각, 펀드 운용, 유망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 다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 제시와 함께, 기술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단순 투자 기능을 넘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혁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범국가적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검증 연계와 멘토링, 후속 투자 유치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기술지주회사는 국내 에너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로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 기업 탄생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포럼을 정례화해 산·학·연 협력을 공고히 하고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에너지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파라과이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계약 체결, 중남미 에너지 시장 영토 확장

한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주한 ‘파라과이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 관련 노하우를 협력 대상국에 공유하고 적합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요 역무는 파라과이 국가기간망 보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 분석, 개선정책 제언, 전력 분야 관계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연계사업 기획 등이며,

사업기간은 11월까지다.

본 컨설팅은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컨소시엄사인 (주)유신과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3월 17일 파라과이 전력청(ANDE)에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이어진 실무회의에서는 한전만의 계통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업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파라과이 전력청은 한전의 우수한 계통계획과 운영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사업이 파라과이의 중장기 전력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전아트센터에서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연되고 있다. 이는 2009년 한국 초연 이후 17년 만에 재공연되는 무대다.

뮤지컬에서는 몬테규 가문과 캐플릿 가문의 대립 속에서 피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틋하고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로미오 역에 가수 김희재, 유희승, 줄리엣 역에 뮤지컬배우 송은혜를 비롯해 가수 심은진, 성악가 박상돈 등이 출연해 무대에 활력을 더한다.

- **공연장** 한전아트센터 대극장
- **공연기간** 3월 24일(화)~5월 31일(일)
- **공연시간** 화, 목, 금 오후 7시 30분
수 오후 2시 30분, 7시 30분
토 오후 2시, 오후 7시
일 오후 2시(월 공연 없음)
- **러닝타임** 15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 **문의처** 070-8633-9080



KEPCO

2026 April
Vol.634

축적



LOCAL : RISING 애달파 더 찬란한, 영월	4
TREND 썩뜸, 사우나런 회복이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 리커버리노믹스	8
SELECT : ON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종목보다 지수를 사는 이유	12
RE : CHARGE 단풍나무에 밀도 높은 동료애를 새기다	16
SCIENCE 조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과학	20
KEPCO TALK 피클볼? 피클이 공을 치나요? - 당신이 몰랐던 2026년 가장 핫한 스포츠	24
KEPCO QUIZ	26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애
달과 더 찬란한
영월의 봄

한 편의 영화가 가진 힘은 대단했다. 역사가 지운 행간의 이야기가 도르르 풀려나와 있었고, 시간이 삼킨 비극이 꽃처럼 흐드러져 있었다. 단종의 슬픔을 목도하게 될 것이란 누군가의 말도 적중했다. 애석하게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불러낸 영월의 봄은 하필이면 그랬다. 슬픈데 찬란하기까지 해서 애뜻하고, 화사하고, 눈부신. 결국 영월의 이 봄엔 누구나 다 애달팠다.

글·사진 이시목 여행작가, 한국관광공사

영화가 불러낸 단종의 시간

새드엔딩이 자명한 영화를 보는 일은 가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었다. 슬픔의 강도가 유난했던 건 어쩌면 그래서였겠다. 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불러낸, 아니 읽어낸 영월의 1457년이 '핫'하다. 그만큼 말하는 이도 많고 찾는 이도 많다. 그중 대다수가 끄는 영월 여행의 목적은 '단종이 마주했을 풍경'이 궁금해서다. 영화 속 장면이 겹쳐 보이는 자리에 서서, 그가 느꼈을 슬픔의 깊이를 헤아려보고 싶었다는 것 과연 어땠을까. "생각보다 훨씬 더 그림된 느낌이라 더 슬펐다"라는 이가 수도룩했다. 영월에 달자마자 청령포부터 찾아야겠다 마음먹은 건 이 때문이다. 스크린이 깨운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는 말하자면 명과 강의 형세로 사람을 가두는 자리다. 삼면을 서강의 둥그런 물길이 막아서고 남은 한 면마저 험한 산자락이 단아걸어 그리움마저 향할 곳을 잃게 만드는 느낌 이랄까. 영화에서는 청령포의 이런 지리적 환경을 '오소리도 길을 잃고 너구리도 환장해 졸도하는 곳'으로 그려낸다. 그만큼 아득한 경계란 애기다. 청령포에서 단종의 이토록 아득했을 마음을 확인하기 좋은 자리는 세 지점이다. 물길 맞은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청령포 전망대와 노산대, 망향탑이다.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노산대와 아내 정순왕후를 그리며 쌓았다는 망향탑은 청령포에서 걸어 닿을 수 있는 길의 끝점들이다. 막다른 길의 끝에서는 누구의 마음이란 쉬이 꺾이는 법. 이 끝으로 가도 저 끝으로 가도 길이 없는 곳에서 단종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일은 그래서 더 막막하다.

하지만 영화는 이곳을 절망의 공간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감시자(엄흥도)와 피감시자(단종)로 출발한 두 주인공의 관계가 이곳에서 연민과 동요로 바뀌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 용기를 내는 단종의 다짐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그래서일까. 울창한 숲속 가운데 짙은 자리한 단종어소에 서면 길의 끝점들에서 느꼈던 막막함이 조금은 가신다. 사람의 온기가 풍경을 데운 것처럼 묘하게 따뜻해진다. 영화가 읽어낸 역사의 행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 그루 소나무의 영향도 크다.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를 닮아 '엄흥도 소나무'라 불리는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어소를 향해 절하듯 가로 누워 있다.



← 단종의 뒤를 따라 동강에 몸을 던진 여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민총사.
↑ 천연기념물인 요선암 돌개구멍. 주천강 물길에 오랜 세월 흰 바위를 손가락으로 떠낸 듯 기묘하게 깎아놓았다.

그 애잔한 풍경 위에 영화 속의 장면을 겹쳐보는 일이라 밀려드는 감정도 참 겹겹이다.

청령포가 살아있는 단종의 슬픔을 가능해보는 자리라면, 장릉은 박제된 그의 슬픔을 역사로 대면하는 곳이다. 죽음마저 온전하지 못해 강물에 던져졌던 시신이 엄흥도의 충심으로 거두어져 남몰래 매장된 곳. 묘는 그 상태로 200년 넘게 방치되다, 숙종 때 단종 복위가 이뤄지며 비로소 '장릉'이라는 명호를 얻었다. 화려한 석물 대신 키 큰 소나무들이 돌레를 지키는 곳. 그곳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과 함께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각도 있다. 매년 4월 열리는 단종문화제가 이들의 오래된 슬픔을 오늘의 이야기로 불러낸다. 단종은 영월에 1년을 채 머물지 못했다. 그러나 단종 없는 영월은 있을 수 없다. 올봄엔 영화가 채운 역사의 행간에 역사가 남긴 한 줄의 문장까지 더해 단종을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 단종 유배의 흔적이 서린 선돌부터 청령포까지, 단종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그의 서사 그대로를 따라 움직인다면, 영월 안에 차곡차곡 접혀 있는 단종의 시간이 보다 선명하게 느껴질 테다.

물비를 화사한 봄날의 강가에서

영화 속에서 물은 어쩔 수 없이 비극적이다. 그 옛날, 서강처럼 영월의 동쪽을 타고 흐르는 동강에도 슬픔은 배어들었다. 추측건대 단종 승하 직후였을 것이다. 그를 모시던 시녀와 시종들이 한달음에 달려가 몸을 던진 곳이 낙화암이었다. 이름 그대로 그들이 꽃처럼 산화했다는 이곳을 봄에 찾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꽃이 퍼서다.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민총사 주변 금강공원 일대가 알아주는 벚꽃 명소이기 때

문. 덕분에 봄마다 이곳은 영월 어디보다 환한 꽃밭이 된다. 벚꽃 핀 금강정 마루에 앉아 동강 푸른 물빛을 눈에 담아도 좋고, 물길 맞은편 전망대를 찾아 연둣빛 흐르는 물가 풍경을 바라봐도 좋다. 그러다 한 번씩 물오리들이 뽀그르르 자맥질하는 풍경을 마주하면 그렇게 마음이 폭 놓일 수가 없다. 비극의 자리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는 일은 그래서 더 애달프고 찬란하다.

물과 달과 별의 노래가 들리는 봄

봄이니 물비를 화사한 봄날의 강가도 더 거닐어보자. 영월은 물길이 휘어지고 구부러지며 땅 곳곳에 기묘한 풍경을 여럿 빛어놓은 도시다. 서강이 오랜 세월 조각한 한반도 지형(선암마을)부터 주천강 거친 물살이 남겨놓은 돌개구멍까지. 여기에 주천강 물로 술 빛던 옛 술도가의 시간 위로 강렬한 현대 예술을 덧입힌 젊은달와이파크까지 있으니, 감탄할 일이 한층 많다. 별마로천문대는 영월의 이 많은 물길, 그중에서도 서강과 동강과 남한강이 만나고 헤어지는 형상을 바라보기 좋은 자리다. 혹시 '단종의 별'을 아시는가. 사자자리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인 '레굴루스'가 바로 단종의 별(영월군 명명)이다. 별마로천문대에 서면 낮에는 낙화암 앞을 흐르는 동강과 청령포를 휘감아 도는 서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밤에는 단종의 별을 찾아 그 아득한 빛과 마주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그림자였을 단종 이홍위. 영화가 불러낸 것처럼, 이 별도 겹겹의 시간을 지나 우리 앞에 당도한 그의 꿈은 아닐지. 아니, 부디 그러하길.

TRAVEL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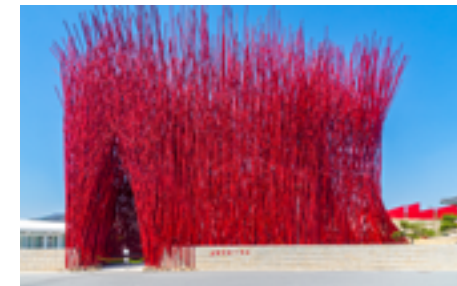
청령포

🕒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입장료 성인 3,000원(도선료 포함)
 ☎ 문의 033 372 1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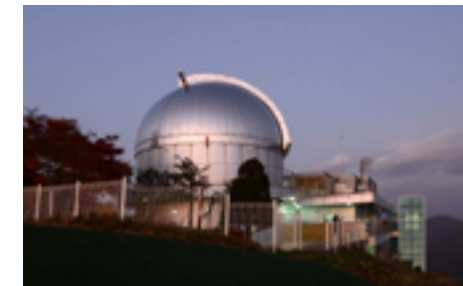
장릉과 단종문화제

🕒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 단종문화제 4.24.~4. 26.
 🎫 입장료 성인 2,000원
 ☎ 문의 033 374 4215



젊은달와이파크

🕒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입장료 성인 15,000원
 ☎ 문의 033 372 9411



별마로천문대

🕒 운영시간 15:00~23:00(매주 월 휴관)
 * 천문대 이용 시, 사전 예약 필수
 🎫 입장료 성인 7,000원
 ☎ 문의 033 372 8445

영월에 살아보니

영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월에 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423일이 지났다. 입사 후 춘천과 인제를 거치며 8년을 근무한 뒤, 지난해부터 영월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영월에서의 삶은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용한 애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 어엿한 영월군민으로서 몇 가지 팁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에서 오는 여행자들에게는 가능하다면 낮 시간대 이동을 추천하고 싶다. 서울에서 영월로 이동할 때 보통 제천을 지나게 되는데 그 구간이 가로등이 많지 않기도 하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영월의 아름다운 풍경은 햇빛 아래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것도 좋다. 영월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와 ITX 열차,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수시로 운행되어 교통수단의 선택지도 다양하다. 특히 ITX-마을 열차는 약 1시간 48분 만에 서울에 도착해 생각보다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데, 그에 비해 영월이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종종 놀라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화 <왕과 사의 남자>

김병주 영월지사 배전운영팀 대리

가 흥행하며 영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구내식당이 없는 우리 지사의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면 인근 식당을 찾는데(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관광객들로 식당이 북벼 발길을 돌려야 하는 날도 생겼다. 그럴 때마다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던 게 아쉽기도 했지만 이처럼 관광객이 늘어 조금씩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면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역사와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 도시에도 활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청령포,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동강 래프팅 외에도 영월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차고 넘친다. 매년 4월 영월에서는 단종문화제가 열리고, 별마로천문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또 젊은달와이파크(젊은달이 무슨 뜻인지 상상해 보시라)에서 멋진 작품들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마치 영월군의 슬로건인 'Young World'처럼 영월의 다채로운 매력은 젊고 생생하다. 조건의 비극적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 영월. 기회가 된다면 사우 여러분도 한 번쯤 이곳을 찾아 '영월드'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



썩뜸,
사우나런
회복이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

리 커 버 리 노 믹 스

건강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아픈 뒤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아프기 전에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력 관리(Resilience Management)와 능동적 회복(Active Recovery)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복력 관리는 몸과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평소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이고, 능동적 회복은 건강 정보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회복 루틴을 직접 선택하고 체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제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지치기 전에 회복하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있다. 바로 리커버리노믹스(Recovery-nomics, 회복과 경제의 합성어)다. 회복을 위한 투자에 아낌없는 시대다.

글 이해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몸을 회복하는 바디 리커버리

요즘 사람들은 '회복'에 진심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 끝없이 이어지는 디지털 소통,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성장 욕구는 사람들에게 피로를 남겼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업무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의하며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 실제 번아웃 경험자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도 많다.

이런 흐름 속에서 리커버리 산업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디 리커버리', 몸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활동이다. 마사지, 스트레칭 스튜디오, 냉수욕, 사우나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운동이 끝난 뒤 근육을 풀어주는 장비나 프로그램도 인기다. 예전에는 운동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운동 뒤에 어떻게 회복하느냐까지가 중요한 루틴이 됐다.

최근 유행했던 썩뜸, 사우나런도 바디 리커버리의 맥락이다.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000건 수준에 머문 '썩뜸' 검색량은 같은 해 12월 1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3만 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찜질방' 검색량 역시 17만 건에서 36만 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가수 이채연이 썩뜸을 체험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SNS를 통해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는 '진짜 썩뜸방'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Recovery-nomics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 '러닝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 후 사우나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운동 후 독소를 제거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일명 '사우나런'이다. 어르신들에게 익숙했던 운동 후 사우나를 들러 휴식을 취하는 루틴이 이제는 젊은 세대의 회복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사우나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함께 3~5km가량 러닝 후 사우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사우나 검색량은 지난해 9월 9만 3,800건에서 지난 1월 16만 8,000건으로 79% 증가했는데 이 중 2030 검색 비율은 44.5%를 차지했다. 텐트에 화목난로를 구비해 60~80도까지 온도를 높여 '텐트 사우나'를 마련해 러닝 후 바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사우나런'의 형태도 나타났다. 이제 사우나는 '어른들의 공간'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회복 루틴이 됐다.

회복 트렌드는 사우나 공간도 바꾸고 있다. '아쿠아필드(Aquafield)'는 스타필드 쇼핑몰 안에 있는 대형 사우나다. 루프탑 풀, 테마 사우나, 휴식 공간, 카페와 레스토랑이 갖춰져 있어 데이트 코스로 찾는 사람도 많다. 쇼핑하다가 들러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예 사우나를 위해 쇼핑

“

머지않은 미래는
인간이 성장을 위해 더 많이,
더 빠르게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다음 시대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회복
속도일지도 모른다.

”



물을 찾는 일도 드물지 않다.

강원도 정선군의 파크로쉬 리조트는 '바디 리커버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이다. 이곳의 인기 비결은 스파와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창밖으로 산 풍경이 펼쳐지는 인도어 사우나는 물론, 가리왕산 능선 뷰의 야외 자쿠지와 아웃도어 스파는 단순한 휴가를 회복의 시간으로 바꿔준다.

마음을 회복하는 멘탈 리커버리

몸의 회복뿐 아니라 멘탈 리커버리도 중요해졌다. 명상, 심리 상담, 디지털 치료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성화되면서 마음을 관리하는 활동이 일상적인 회복의 한 방식이 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명상 앱이다. 마보(Mabo)는 2016년 베타 서비스로 시작한 한국어 기반 마음챙김 명상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정신의학과 연구진과 함께 명상 콘텐츠가 우울과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fMRI(기능적 자기 공명영상)를 활용해 두 달간 명상 앱을 이용한 이후의 뇌 활동 변화를 분석했는데,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변화가 관찰됐다고 한다.¹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LG 스마트홈 플랫폼 'ThinQ On'과 협력해 수면 전 명상, 아침 명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명상이 개인 취미를 넘어 생활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헤드스페이스(Headspace) 앱 역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도록 돕는다. 10분 정도의 짧은 프로그램이나 수면 명상이 제공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컴패니언 기능인 'Ebb'도 추가됐다. 사용자가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AI에게 텍스트 혹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AI가 감정 상태를 정리해주고 호흡법이나 명상을 추천한다.² 말 그대로 디지털 감정 코치다.

삶을 총체적으로 되살리는 라이프 리커버리

마지막 영역은 라이프 리커버리다. 삶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활동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면이다. 잠은 하루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인간의 '배터리 충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과 기억력, 감정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면 자체가 하나의 관리 대상이 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낮잠 카페 심스토리에 들어가면 공간 분위기부터 다르다. 입구에서 작은 복도를 따라 낮은 조명이 이어지고, 안쪽에는 커튼으로 나뉜 낮잠 공간이 있다. 각각의 공간에는 폭신한 침대와 담요가 준비돼 있고 조명은 어렵게 조절돼 있다. 이용자는 시간 단위로 낮잠 상품을 선택하고, 시간이 되면 직원이 조용히 깨우러 온다. 어쩌다 잠깐 눈을 붙이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심시간마다 찾는 사람도 있다. 짧은 낮잠으로 나를 충전하기 위해서다.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 '네스카페 수면 카페'는 커피와 낮잠을 결합한 공간이다. 먼저 커피를 마신 뒤 리클라이닝 의자나 침대가 있는

수면 공간에서 낮잠을 잘 수 있다. 카페인을 포함한 커피를 마신 후 15~20분 정도 짧게 잠드는 '커피 냅(Coffee Nap)' 캠페인을 전개 중인데, 잠에서 깬 즈음 카페인과 졸음의 작용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일상 속 리커버리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2025년에는 자동차 내부 설계 기술이나 졸음운전 방지 기술 등이 적용된 인테리어로 도요타와 협업하기도 했다.

수면 기술 역시 회복 산업의 중요한 영역이다. 한국 스타트업 텐마인즈(Tenminds)는 CES 2026에서 'AI 슬립봇'을 공개했다. 잠을 잘 때 생체 리듬을 측정해 더 깊이 쉬도록 돕는 회복 기술이다. 잠들기 전 호흡을 안정시키고 밤 동안 수면 상태를 분석해 다음 날 더 나은 휴식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행에서도 '리커버리'는 중요한 키워드다. 힐튼그룹이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여행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행자가 여행의 주요 목표로 '숙면'을 꼽았다. 이를 위해 여행자의 약 18%가 자신이 사용하는 배게를 직접 가져간다는 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호텔들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배게 메뉴를 제공하거나 숙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호텔은 '슬립 패키지'를 만들어 수면 명상, 아로마, 맞춤 배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느냐가 핵심

리커버리 비즈니스의 성장은 이제 사람들이 성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아낌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 성장의 시대에는 '확장'이 경쟁력이었다. 더 많은 매장,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속도가 중요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가 경쟁력이 된다. 머지않은 미래는 인간이 성장을 위해 더 많이, 더 빠르게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다음 시대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회복 속도일지도 모른다.

¹ "그냥 노는 건 줄 알았는데..." 명상, 실제로 뇌 변화 일으킨다 한국경제, 2025. 12. 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426351>

² <https://www.headspace.com/ai-mental-health-companion>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종목보다 지수를 사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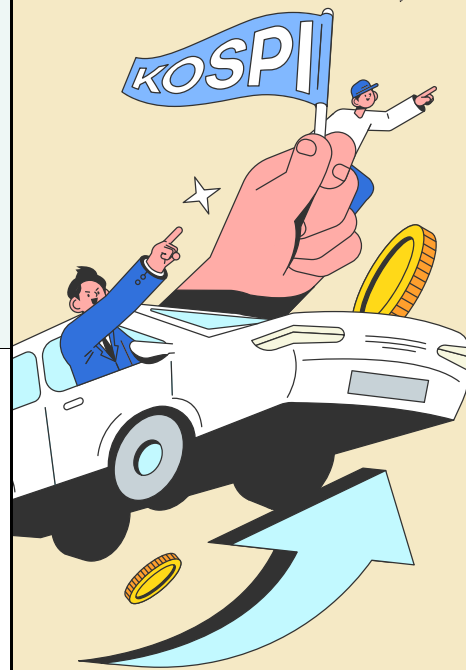
주식 이야기가 어느새 일상적인 대화가 됐다. 점심시간 스몰토크에서도 ‘주식 뭐 샀어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다. 그런데 최근 주식을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자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선호하는 기업이 있다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지수 이야기부터 S&P500, ETF 투자까지. 왜 많은 투자자가 종목 대신 ‘시장’에 주목하는지 살펴본다.

글 김정인 KUPA Brand & Content Lead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오른손과 왼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바로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이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처럼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다. 기업 규모가 크고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코스닥은 조금 다르다. 기술 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이다. 바이오처럼 한 번에 ‘대박’을 노려볼 수 있는 높은 기업이 많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 코스피를 오른손, 코스닥을 왼손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껏 ‘심한 오른손잡이’였다. 하지만 무엇이든 균형이 잡혀야 좋은 법. 올해 들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코스닥에 힘을 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균형 잡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OSDAQ?



시장의 체온을 보여주는 숫자, 지수(Index)

주식 뉴스를 보면 늘 숫자가 등장한다. 코스피5000, 코스닥900 같은 숫자다. 대표적인 시장 뒤에 따라 붙곤 하는 이 숫자를 지수(Index)라고 한다. 지수는 시장에 있는 여러 기업의 주가를 종합해 만든 값이다. 쉽게 말해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숫자다. 현대차 한 종목이 오르는 건 한 기업의 이야기이지만 현대차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기에 현대차가 오르면 코스피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게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INDEX!



왜 요즘 투자자들은 ‘지수’를 살까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투자 방식은 지수 투자다. 이 방식은 개별 종목을 고르는 대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분산 투자 효과다. 지수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기업을 묶어 만든다. 특정 기업이 부진해도 다른 기업이 이를 보완한다.
- 둘째**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구조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 지수 투자는 그 성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 셋째** 투자 난이도가 낮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려면 기업 실적, 산업 전망, 재무 구조까지 분석해야 한다. 반면 지수 투자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데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초보 투자자들은 종목보다 지수를 본다. 개별 기업의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 내공을 쌓기 전에는 시장 전체의 상승세에 투자하겠다는 안전한 선택이다.



S&P500과 SPY, 헷갈리기 쉬운 이름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수 이름은 단연코 S&P500이다. S&P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주가를 모아 만든 지수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투자 관련 정보를 모으다 보면 S&P만큼이나 SPY라는 이름도 자주 등장한다.

헷갈리기 쉽지만 의미는 다르다. S&P500은 지수 이름이다. SPY는 그 지수를 따라 움직이도록 만든 ETF 상품이다. 요즘 ETF를 모르면 투자가 어렵다. ETF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는 ETF를 통해 지수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수는 지도이고 ETF는 그 지도를 따라가는 자동차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올해 2월,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코스피가 6000을 뚫었다. 그렇게 7000도 가는 거 아니냐 농담하던 중 갑작스런 전쟁의 여파로 코스피가 순간 5093까지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체력은 더이상 6000을 넘어서지 못할까?

시장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 등 장기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요소들이 여전히 건재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켓처럼 급등하며 단숨에 6000선을 돌파했지만, 언제나 급히 오르는 가격은 급하게 빠진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극심해진 만큼 시장을 이해하는 눈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개별 종목보다 지수를 중심으로 흐름을 읽고, 투자에 대한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지만 과정을 돌아보면 결코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번 중동발 쇼크처럼 금리 변화,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며 울퉁불퉁해진다. 그럼에도 시장의 힘을 믿는다면 답은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 투자'다.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존 보글이 세운 뱅가드그룹은 장기적으로 대다수 액티브 펀드를 앞지르는 수익률을 증명해 왔고, 가치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사후 재산의 90%를 지수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1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는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대신,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별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다. 시장 평균을 이기려는 전략인 만큼, 성과는 매니저의 판단과 운용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결국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한다.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어떤?'

종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시장의 방향은 더 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은 종목을 고르기 전에 먼저 지수와 시장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다.

주식 투자는 쉽게 말해 현재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고 미래에 제값을 받고 파는 일의 반복이다. 투자자의 안목과 기대가 보답받는 시장이라면, 그 시장의 미래에 기대를 거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지수 추종 ETF를 담아두고 그 ETF를 구성하는 주도 종목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한국전력. 올랐던 이유, 오를 이유

한국전력 주가는 지난한 횡보 끝에 2025년 말부터 급격히 반등하며 올해 1월, 장중 6만 7,3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연초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국제 유가의 장기 하향세와 안정적인 천연가스 가격 흐름이 배경이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안정은 전력도매가격(SMP)의 하향·안정으로 이어지고, 이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하면서 전력구입비용이 줄어들어 손익이 개선됐다.

하지만 3월,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에너지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전력도 다시 불안정한 파도 위에 올라탔다. 장기투자자들에게 사랑 받아온 한국전력의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변수를 제거하고 기초체력을 보는 시선이 도움이 된다. 한국전력을 둘러싼 중장기 환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체계의 점진적 현실화, 그리고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는 서로 맞물리며 전망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AI 산업 확대, 데이터 센터 증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은 모두 전력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원전 산업 재편 역시 한국전력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요소다. 결국 한국전력은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이클 산업'의 성격과,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는 인프라 기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단순하다.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트렌드에 연료비와 정책 변수를 더해 보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불안 속에서도 한국전력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과 미래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우리가 한국전력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이유다.



단풍나무에 밀도 높은 동료애를 새기다

같은 부서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회사 생활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던 수요일 오후, 회사 바깥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해 서초지사 전력공급부 배전운영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글 윤노영 서초지사 전력공급부 대리 사진 이동진



선생님에서 동료로 이어진 인연

윤노영, 송윤주, 이현학, 금병준, 저희 네 명이 친해지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먼저 윤주 대리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노영 대리가 산학겸임교사로 오며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주 대리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우연히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인연을 계기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현학 대리와 병준 대리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 이야기까지 편하게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RE:CHARGE 코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출근하던 서초동을 떠나 가장 트렌디하고 힙한 성수동에서 만난 동료들은 조금 새삼스러웠습니다. 독섬역 근처 지하 1층에 위치한 목공방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나무 향에 오늘 체험이 점점 기대됐습니다. 공방 안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나무로 만든 미닫이문과 커다란 책상 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방을 채우고 있는 가구들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며 오늘은 한 손에 잡히는 작은 도마이지만, 취미를 붙인다면 저런 가구들도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체험이 시작하자마자 공방장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건 도마의 재질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도마가 과연 위생적일까? 칼자국 사이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마침 도마에 적합한 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균이 살기 쉬운 도마'라는 것은 표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많아서 세균이 속에 남아서 번식하기 쉬운 도마를 말합니다. 예전엔 도마에 느티나무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느티나무는 조직이 조밀하지 못하고 물구멍이 커서 도마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느티나무보다 조직이 조밀하고 밀도가 높은 하드우드(Hard Wood)이고, 물구멍이 작아서 닫힌 결(Close-grain)로 인정되는 단풍나무(Hard Maple)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희도 오늘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도마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손끝에서 다듬어지는 나뭇결의 감각

오늘 수업은 도마를 다듬어서 글씨를 새겨 넣고, 오일링 하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직접 재단하진 않으니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체험해 보면 손의 감각에 집중하느라 많은 집중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를 고정 한 후 가장 거친 사포로 표면을 다듬었습니다. 거친 면이 어느 정도 정리 되면 사포를 두어 번 더 바꿔가며 정리하는데, 옆면과 손잡이는 넓은 면보다 거칠기도 하고, 곡선이 많아 사포로 다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하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도마를 다듬으면서 달달한 단풍나무 향이 올라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사포질을 마친 후엔 샌딩기를 이용해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사람이 놓친 표면을 균일하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샌딩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꽤나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진지한 게 웃겨서 이때 서로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 에어건으로 먼지를 날린 도마를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우드버닝(Wood Burning)으로 글씨를 새겨 넣기 위해 연습용 나무토막에 버닝펜으로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나 가족들의 이니셜을 새겨보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연습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도마에 직접 이름을 적으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도마라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새긴 자리를 가볍게 다듬고 미네랄 오일을 먹이듯 발라 도마를 완성합니다. 오일을 먹으면서 색이 진해진 도마는 반짝반짝 빛나며 더 예뻐졌습니다. 하루 정도 말린 후부터 바로 쓸 수 있다는 데 평소에도 꼭 직사광선을 피해 말려주고, 한 번씩 사포질과 오일링 작업을 해주면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장님이 언제든지 공방에 들러 작업해도 된다고 하셔서 다음에 또 같이 오자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할 때는 가장 든든하고, 웃을 때는 가장 시끄러운 우리

이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분위기가 편하고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각자 맡은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을 일이 많아 함께 일하는 시간이 훨씬 즐겁게 느껴지게 하는 동료들입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힘을 보태는 든든함도 있습니다. 오늘 도마 만들기 체험에서도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일상 밖으로 나왔지만 역시 서로가 편하고 재미있었고, 각자가 가진 의외로 섬세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팀원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다음엔 또 무엇을 해볼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교적 정적이었던 도마 만들기도 충분히 즐거웠기에 승마처럼 활동적인 건 어떨까요? 서초지사의 관할인 과천에서는 승마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이곳의 특색을 살려 과천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말과 함께 자유롭게 달리면 오늘과는 또 다르게 동료들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작업해 준 동료들에게 고맙고, 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일할 때는 가장 든든하고, 웃을 때는 가장 시끄러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송윤주

서초지사 전력공급부 대리

동료들과 함께 도마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어 무척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사포질이 생각보다 힘들어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점점 나무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걸 보니 은근히 재미가 붙었습니다. 서로의 작업 과정을 보며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도 많아지고 분위기도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만든 도마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이 도마를 사용할 때마다 오늘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체험했던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윤노영

서초지사 전력공급부 대리

먼저 인터뷰와 촬영을 위해 멀리서 와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마 만들기 체험을 하며 웃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해 준 우리 동료들에게도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마 만들기는 단순히 나무를 다듬는 시간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조각의 나무가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하나의 도마로 완성되듯,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일 역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기부를 위해 머리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작은 손길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체험은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현학

서초지사 전력공급부 대리

이번 도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과 육아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도마의 나무결을 만지며 샌딩작업을 하고 마무리로 오일 바르는 작업을 하며 메이플 나무 특유의 냄새도 맡았고 동료들과 같이 웃으며 작업하면서 새로운 모습들도 보게 된 특별한 하루였어요. 평소엔 지사에서 만나며 일하느라 바빴지만 성수동에서 재미있는 하루를 만들어준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체험 같이 해요.



김병준

서초지사 전력공급부 대리

도마 만들기 체험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목공 작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사포질과 샌딩 과정을 거치며 거칠었던 나무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고, 버닝펜으로 이름을 새기고 오일을 발라 세상에 하나뿐인 도마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보였던 도마 하나도 여러 작업과 정성을 거쳐 완성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체험했던 시간이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흑백요리사〉부터
〈냉장고를 부탁해〉까지

글 이종림 『과학동아』 객원기자

조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과학



요리는 재료를 익히는 일이 아니라, 재료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같은 고기라도 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질감이 질겨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며, 향이 맛있게 남기도 하고 깊게 피어나기도 한다. 조리법이 다르다는 것은 순서만 다른 것이 아니다. 열이 재료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과 속도가 다르다는 뜻이다. 표면의 반응, 수분의 이동, 내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음식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굽기와 볶기, 찜과 조림처럼 주방에서 매일 반복되는 조리에는 맛을 바꾸는 저마다의 화학과 물리 원리가 숨어 있다.

압력솥과 숯불이 만든 고기의 두 가지 맛

스테이크처럼 센 불에 빠르게 굽는 요리에서는 재료의 표면을 짧은 시간에 고온으로 익히는 시어링을 한다. 표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면 노릇한 겉면과 진한 구운 향이 생기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이 마이야르 반응이다. 고기 속 아미노산과 당이 높은 온도에서 만나 갈변하면서 다양한 향기 성분을 만들어 내는 반응으로, 팬이 충분히 달궈지고 표면의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간 상태일수록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반대로 표면에 물기가 많으면 열에너지가 먼저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쓰이면서 표면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고, 갈변과 향 형성도 그만큼 늦어진다.

다만 겉면을 강하게 지진다고 해서 육즙이 물리적으로 가뭇지는 것은 아니다. 고기를 가열하면 근육 단백질이 차례로 변성·수축하고,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섬유 사이의 수분은 더 빠져나오기 쉽다. 촉촉함을 좌우하는 것은 겉면을 세게 굽는 일보다, 내부 온도를 알맞은 지점에서 멈춰 수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시어링은 풍미를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육즙을 지키는 문제와는 별개다. 오히려 고온의 시어링은 근섬유를 강하게 수축시켜 수분을 쥐어짜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눈길을 끌었던 손종원 셰프의 우설 요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조리 방법을 한 접시에 결합한 사례다. ‘쓰리스타킬러’와의 우설 대결에서 그는 실로 묶은 우설을 압력솥에 40분간 익힌 뒤 숯불에 구워냈다. 압력솥은 내부 압력을 높여 물의 끓는점을 100℃ 보다 더 높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일반 냄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재료를 익힌다. 이 과정이 우설의 질긴 결합조직을 부드럽게 풀어 준다. 콜라겐 성분을 부드러운 젤라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숯불 단계는 표면 온도를 빠르게 높여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동시에, 숯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향까지 더해 겉면의 풍미를 강화한다. 이처럼 하나의 재료에 두 종류의

열을 순서대로 적용해 내부의 부드러움과 표면의 구운 향을 따로 설계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이끈 결정적 차이였을 것이다.

베이킹이 작은 차이에도 무너지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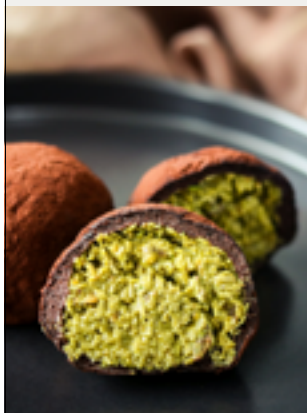
베이킹을 할 때면 같은 레시피로 반죽해도 어떤 날은 잘 부풀고, 어떤 날은 축 처지거나 손에 달라붙는다. 베이킹 서바이벌 <천하제빵>에서 예선 참가자들이 낯선 스튜디오에서 조리를 하며 곳곳에서 탄식이 터진 이유도 그래서다. 제과-제빵은 재료 비율만이 아니라 반죽 온도와 주변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죽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효모의 활동 속도와 발효 리듬이 바뀌고, 그 결과 부피와 향, 조직감까지 달라질 수 있다. 발효 중 온도와 습도, 오븐 환경의 작은 차이도 마찬가지로.

슈처럼 예민한 제과 반죽은 더 까다롭다. 팀전에서 '도파민이 필요한 날'을 주제로 에그타르트 슈를 만들던 팀이 고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슈 반죽은 효모가 아니라 반죽 속 수분이 증기로 팽창하며 부풀어 오른다. 이때 반죽 안에서는 전분이 호화되고 달걀과 밀가루의 단백질이 구조를 잡아야 하므로 수분량과 점도, 굽는 온도와 시간의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형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디저트는 설탕과 지방, 공기가 더해지며 훨씬 복잡한 식감이 만들어진다. 한동안 큰 인기를 얻었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가 대표적이다. 겉의 마시멜로 껍질은 설탕 시럽에 공기가 섞여 만들어진 거품을 젤라틴이 안정화한 구조라서, 말랑하면서도 늘어나는 듯한 탄성이 생긴다. 그에 반해 안쪽의 카다이프는 가느다란 가닥 속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며 가볍고 바삭한 결을 남긴다. 한입 베어 물면 바깥의 쫀득함과 속의 바삭함이 차례로 드러나며 매력적인 식감의 대비를 느낄 수 있다.

설탕은 이러한 디저트의 식감을 설계하는 핵심 재료다. 단맛뿐 아니라 밀가루의 아미노산과 만나 마이야르 반응을 돕고, 고온에서는 스스로 캐러멜화되어 특유의 갈색빛과 복합적인 풍미를 완성한다. 식은 과정에서 수분이

한입 베어 물면 바깥의 쫀득함과 속의 바삭함이 차례로 드러나며 매력적인 식감의 대비를 느낄 수 있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질감도 달라진다. 여기에 버터 같은 지방이 더해지면 반죽 속 단백질이 지나치게 굳는 것이 억제되면서 조직이 더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당근은 어떻게 면이 되고 도넛이 될까

<흑백요리사2>가 끝난 뒤에도 인터넷에서 꾸준히 화제가 된 것은 후덕죽 셰프의 당근 요리였다. 평범한 당근이 전혀 다른 음식으로 변했다. 후 셰프는 밀가루 없이 당근을 가늘게 다듬어 짜장면으로 만들고, 당근을 꼭 닮은 꼬마 당근 튀김까지 선보였다. 최근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김풍이 이 발상을 오마주해 비슷한 당근 도넛을 만들며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후덕죽 셰프의 당근 짜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힘의 정도다. 생당근의 아삭함은 세포벽과 세포 사이를 붙드는 펙틴, 단단한 조직 구조에서 나온다. 열을 받으면 세포벽의 지지대인 펙틴이 수용화되어 조직이 점차 유연해진다. 이때 덜 익히면 세포벽이 견고해 면처럼 휘어지지 않고 너무 익히면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쉽게 끊어진다. 이 요리의 핵심은 가늘게 썬 칼질 기술보다도, 그 질감의 경계선을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있다. 세포벽이 풀리되 완전히 무너지기 전의 지점을 맞춰야 비로소 면 같은 유연함이 생긴다.

여기에 짜장소스가 더해지면 맛의 방향이 달라진다. 당근은 익을수록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향과 질감이 바뀌면서 원래 들어 있던 당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후 셰프가 짜장소스

과학만으로 요리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냄새를 맡으며 색과 질감의 변화를 읽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감각이 맡는 일이다.

원리를 알면 언제 불을 줄이고, 언제 뒤집고, 언제 불에서 내려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맛있는 요리는 과학 위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알맞은 때를 알아채는 건 손끝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에 미소된장을 섞어 볶은 것은 이런 단맛에 발효된 콩의 감칠맛을 겹쳐, 채소를 한층 더 진한 중심 재료로 만든 선택이었다. 결국 이 요리는 당근으로 면을 흉내냈다기보다, 당근의 조직과 단맛이 가장 잘 살아나는 지점을 짜장의 풍미와 연결한 요리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당근을 꼭 닮은 꼬마 당근 튀김과 이를 오마주한 김풍의 당근 도넛은 또 다른 변신이다. 튀김은 재료의 겉과 속 수분 분포를 다르게 만들어 서로 다른 식감을 내는 조리법이다. 뜨거운 기름이 재료 겉면의 수분을 빠르게 날리면서 바깥쪽 조직을 먼저 굳혀 얇은 껍질을 만든다. 안쪽은 수분을 상대적으로 더 머금고 있어 부드러거나 쫀득한 식감이 남는다. 당근 도넛에서도 반죽에 들어간 전분과 당은 표면이 갈색으로 잘 익도록 돕고, 지방은 조직이 지나치게 단단해지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과학 위에 완성되는 손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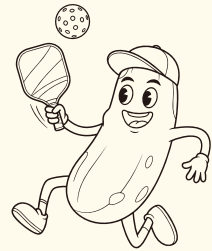
이처럼 조리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불의 세기만이 아니다. 단백질과 수분, 세포벽과 당, 지방과 공기가 열을 받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가 식감과 향을 결정한다. 같은 재료라도 열을 가하는 순서나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된다. 요리의 과학은 정답을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재료가 열 앞에서 거치는 변화를 읽어 내는 일에 가깝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셰프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순간의 판단으로 요리를 완성해 내는 것도 그 변화의 흐름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만으로 요리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냄새를 맡으며 색과 질감의 변화를 읽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감각이 맡는 일이다. 원리를 알면 언제 불을 줄이고, 언제 뒤집고, 언제 불에서 내려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맛있는 요리는 과학 위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알맞은 때를 알아채는 건 손끝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무엇이든 사랑하세요!

피클볼?
피클이 공을 치나요?

당신이 몰랐던
2026년
가장 핫한 스포츠



글 강남영 에너지신사업처 수조사업실 차장



이제 당신의 수요일 저녁이 바뀐다.
그런데 도대체 피클볼이 뭘까?
솔직히 말해보자. 처음 ‘피클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 혹시 이게 아닐까? “피클... 볼? 오이 피클을 공처럼 던지는 스포츠? 아니면 피클을 먹으면서 하는 볼링?”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전기보다 빠르게 피클보다 강하게
(feat. 살 빼고 싶은 모든 직원 여러분께)

피클볼(Pickleball)은 테니스 + 배드민턴 + 탁구를 믹서기에 갈아 만든 듯한,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라켓 스포츠다. 배드민턴 코트 절반 크기의 작은 코트에서, 탁구 라켓보다 조금 큰 패들(Paddle)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다. 뭔가 규모도 작고 귀엽다? 그게 바로 함정이다!

● 피클볼은 왜 피클볼인가?

피클볼이란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피클볼은 1965년 미국 워싱턴주의 조엘 프리처드 의원이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뒷마당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게임인데, 이것저것 섞은 모습이 '피클보트(Pickle Boat, 여러 팀에서 버려진 선수들로 구성된 조정 팀)'를 닮았다고 해서 피클볼이 됐다는 설. 두 번째, 프리처드 가족의 강아지 이름이 '피클스(Pickles)'였는데, 이 개가 공을 물고 달아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는 설.

어느 쪽이든 지금은 전 세계 5,000만 명이 즐기는 스포츠가 됐다.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 그렇다. 피클볼 인구가 훨씬 많다. 어서 합류하시라.

● 빌 게이츠도 하는데, 나만 안 한다고요?

피클볼이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자 이미 수많은 유명인들이 코트를 점령했다.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아무튼 전 세계 핫한 유명인들이 지금 피클볼을 치고 있다.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한정판으로 피클볼 패들이 출시됐다. 일본 머스크도 치는가 보다. 한국에서는 2018년 대한피클볼협회가 창설된 이후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미 우리 회사 내 피클볼 클럽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몰랐다고?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다. 운명이다.



경기 규칙, 30초 요약

- ❶ 코트는 배드민턴 절반 크기(13.4m × 6.1m)
- ❷ 패들(라켓)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쳐서 상대 코트에 넘기면 된다.
- ❸ 네트 양쪽 끝에 '키친(Kitchen)' 혹은 '논-발리존(Non-Volley Zone)'이라는 구역이 있어, 여기서 발리(바운드 전에 치는 것)를 할 수 없다.
- ❹ 단식(1:1) 또는 복식(2:2)으로 진행
- ❺ 11점 선취 승리(2점 차 이상이어야 함)
- ❻ 서브는 반드시 언더핸드(아래에서 위로)!

이게 끝이다. 이 정도면 이미 절반은 배운 거다. 나머지 절반은 코트에서 같이 배우면 된다.

● 피클볼이 우리 직원들에게 완벽한 7가지 이유

1 배우는 데 딱 1시간이면 됩니다 (진짜로)

피클볼은 패들 잡는 법 5분, 기본 서브 10분, 점수 규칙 15분이면 당일 경기 가능하다. 운동 신경이 조금 없어도 괜찮다. 코트가 작아서 많이 안 뛰어도 된다.

2 1시간에 300칼로리 소모
치킨 반 마리 값 운동

피클볼 1시간이면 300칼로리가 올라당 사라진다. 치킨 한 조각 + 맥주 한 캔 정도? 게다가 전신 운동이라 심폐 기능 향상, 순발력 개선, 유연성 향상까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를 외롭게 달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땀 흘릴 수 있다.

3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워라밸의 완성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한빛홀에서 피클볼동호회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퇴근 후 딱 한 시간, 땀 흘리고, 웃고, 동료와 소통하는 그 시간이 한 주의 피로를 날려준다. 주중에 활력 포인트가 생기면 목요일, 금요일 업무 효율도 올라간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아마도?)

4 코트가 작다 = 대화가 된다
= 인간관계가 된다

테니스 코트는 너무 넓어서 상대방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하다. 하지만 피클볼 코트는 배드민턴 코트의 절반 — 네트 너머 상대방이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그래서 평소 같은 건물에 있어도 말 한마디 못 나누던 타 부서 동료와 코트에서 한 팀이 되어

함께 포인트를 따는 순간, 그 팀워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연대감이 된다.

5 부장님도 이긴다!
연령·체력 격차가 없다

이게 가장 혁명적인 부분. 피클볼은 순수한 체력보다 전략, 손 감각, 위치 선정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젊고 빠른 신입사원이 60대 베테랑 선수에게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인즉슨 신입이 부장님을 이길 수도 있고, 부장님이 신입에게 실력으로 군림할 수도 있다는 뜻. 회사에서 이런 평등한 전장(?)이 또 어디 있겠는가.

6 부상 위험이 낮다
월요일에 출근은 해야 하니까

코트가 작고 공이 가벼우며 큰 스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깨·무릎·허리에 가는 부담이 테니스나 배드민턴보다 현저히 낮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재활 스포츠, 시니어 스포츠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7 장비 이용이 저렴
지갑이 고마워한다

피클볼 패들은 좋은 입문용 패들 하나에 5~8만 원이면 충분하다. 공은 한 세트에 몇천 원이고, 운동화는 이미 갖고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 클럽 공용 장비도 준비되어 있으니, 처음엔 빈손으로 와도 된다. 손만, 아니 발도 갖고 오시라.



1시간만 같이 쳐보면 알 것이다! 왜 전 세계 5,000만 명이 빠져드는지.

한전피클볼클럽,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우리 동호회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신생 동호회다. 고수도 없고, 장비도 넉넉하고, 눈치도 없다. 완전 초보 대환영!

- ☐ 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6:30
- ☐ 장소(온&오프) 한전피클볼클럽(오픈채팅방) & 한빛홀(본사)
- ☉ 전국 어디서든 피클볼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
- ☐ 준비물 운동화, 물, 그리고 약간의 용기

재미있는 낱말 퀴즈



〈KEPCO〉 4월호를 읽고 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독자분들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Q1 □□□□ 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운영시스템으로, 발전소 운전·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설비 상태를 예측하고, 고장을 최소화하며,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힌트 'TRANS : MISSION'

Q2 □□□ □ 은 1900년 4월 10일 서울 종로거리에서 문명의 빛, 전기가 처음으로 한성전기 회사에 의해 점화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힌트 '이야기 전력사'

Q3 □□ 는 시장에 있는 여러 기업의 주가를 종합해 만든 값이다.

힌트 'SELECT : ON'

참 여 방 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 수 마 감 4월 20일(월)까지
이벤트 상품 신세계 상품권 2만원권
선물 발송일 5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 2026년 〈KEPCO〉는 리버스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책을 뒤집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365일 24시간 전기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365일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대형정전이 연간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
태풍 피해에도 24시간 내 복구율 99%를 기록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력선진국 대한민국 뒤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AI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품질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전력이
전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기품질은?

정전시간은 주요 선진국 대비 16.3~73.1% 수준으로 월등히 낮고
정전 횟수 또한 가구당 연간 0.1회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